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Global Infectious Disease Outbreak Update

요약

1. 코로나19, 유럽 COVID-19 in Europe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천천히 증가하고 있으나 NB.1.8.1변이가 다른 오미كرون 계열 변이보다 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유럽(EU/EEA)국가에서 코로나19는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었으나 최근 천천히 증가하고 있으며, 입원·중환자실 입원·사망 등 중증 지표에서 유의미한 증가는 나타나고 있지 않음
 - 최근 점유율이 증가 중인 NB.1.8.1변이가 다른 오미كرون 계열 변이보다 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며, 중증질환에 대한 백신 효능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다만,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낮았던 지난 겨울 이후, 특히 고령자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인구 집단 면역력이 부분적으로 약화됐을 수도 있어 코로나19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지난 겨울 유럽(EU/EEA)지역 국가 중 80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중증질환 부담이 가장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접종률이 80%를 넘는 국가는 1개국, 50%를 넘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했다고 밝힘
 - ECDC는 지속적인 코로나19 및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 신속 보고 체계 유지 필요, 방역 수칙 준수를 언급하였고, 각 국가는 고령자 및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함
- 국외 코로나19 발생 상황 및 예년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여름철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코로나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환기, 기침예절 등 예방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과 증상 있을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당부

2. Clade 2b 엠폭스, 시에라리온 Clade IIb Mpox in Sierra Leon

'25년 시에라리온 전 지역에서 엠폭스(clade 2b) 확진자 급증 중

- '25년 시에라리온 전역(16개 지역)에서 엠폭스 감염 사례가 급증하여 누적 확진자는 4,151명, 사망은 25명으로 확인됨. 모두 clade 2b 엠폭스로 보고됨
 - 시에라리온 보건당국은 엠폭스 방역에 필요한 백신 640만 도스 중 50만 도스만 확보될 정도로 백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제한적 감시체계(검사 양성률 85%), 미흡한 접촉자 추적(확진자 1명당 평균 2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HO 및 아프리카 CDC와 협력하여 다부처 합동의 AVoHC-SURGE(African Volunteers Health Corps Strategic Use of Response Groups of Emergencies) 대응팀 36명을 고위험 지역에 긴급 배치함

- 국내 clade 2b 엡폭스 환자는 '23년 151명 보고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4년 17명, '25년(6.18.기준) 3명 발생 보고됨. 엡폭스 유행지역 방문 시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접촉을 피하고 야생동물과의 접촉 및 섭취를 삼가며 오염된 물품은 만지지 말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권고

3. 치쿤구니야열, 케냐 Chikungunya in Kenya

케냐 몸바사 카운티에서 치쿤구니야열 양성 25명 확인, 치쿤구니야열 주의

- 케냐 몸바사(Mombasa) 카운티에서 '25년 5월 중순부터 발열성 질환 사례 보고 증가. 의심 사례 50명 중 45명 검사 결과 25명에서 치쿤구니야열 양성 확인. 몸바사 지역에서 산발적 발생은 보고되고 있었으며, 마지막 치쿤구니야열 유행은 '18년 총 262명(확진 151명) 발생임
- 최근 비가 지속되어 광범위한 모기 서식지가 형성되고 그에 따라 치쿤구니야열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몸바사 카운티는 비상 대응팀 가동하고 주민들에게 모기 서식지 제거 및 모기장 사용 등 예방조치를 촉구함
- 치쿤구니야열 국내발생 보고는 아직 없고 해외유입 사례만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24년) 동남아시아 방문 후 감염된 사례가 가장 많았음. '25년에는 현재(6.18.)까지 신고된 사례는 1명(해외유입)임. 치쿤구니야열 발생 국가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며, 모기예방 물품 준비, 모기기피제 사용 등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필요

4. 내장리슈만편모충증, 케냐 Visceral Leishmaniasis in Kenya

케냐에서 '24년~'25년(~22주) 내장리슈만편모충증 누적 사례 총 1,378명, 사망 46명 보고

- '24년~'25년(22주 기준) 케냐에서 내장리슈만편모충증 누적 사례 총 1,378명, 사망 46명(치명률 3.3%) 보고, '24년 49주부터 증가하여 '25년 7~10주에 최다 발생 후 21주까지 꾸준히 감소 중, 최근 22주에 만데라(Mandera) 지역에서 신규 환자 10명 보고
- WHO/AFRO는 케냐에서 리슈만편모충증 주간 사례 수는 감소했지만, 만데라 지역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여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 15세 미만에서 지속적인 사망자 발생은 의료서비스 취약 지역에서의 사례 감시 강화, 진단 및 치료 접근성 향상 중요성 부각
- 국내에 매개체인 모래파리가 토착적으로 분포하지 않으며 해외유입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
- ※ 내장리슈만편모충증 유행 지역 방문 시 모래파리 활동 시간대인 야간에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긴 옷으로 노출을 최소화하며, 노출된 피부에는 곤충기피제 사용 등

1. 코로나19, 유럽 COVID-19 in Europe

발생 상황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코로나19가 최근 몇 주간 유럽(EU/EEA)국가에서 천천히 증가하고 있으나, 입원·사망 등 중증 관련 지표에서 유의미한 증가는 나타나고 있지 않음. 또한 NB.1.8.1변이가 다른 오미كرون 계열 변이보다 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며, 중증질환에 대한 백신 효능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다만,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낮았던 겨울 이후, 특히 고령자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인구 집단 면역력이 부분적으로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바이러스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유럽(EU/EEA)지역은 '25년 23주 현재 코로나19 검사 양성률 10.2%(11개국)로 이는 전년 동기간 19.2%(16개국)보다 낮은 수준이고, '24년 최고치인 26주 31.1%(13개국)에 비해서는 1/3에 이르는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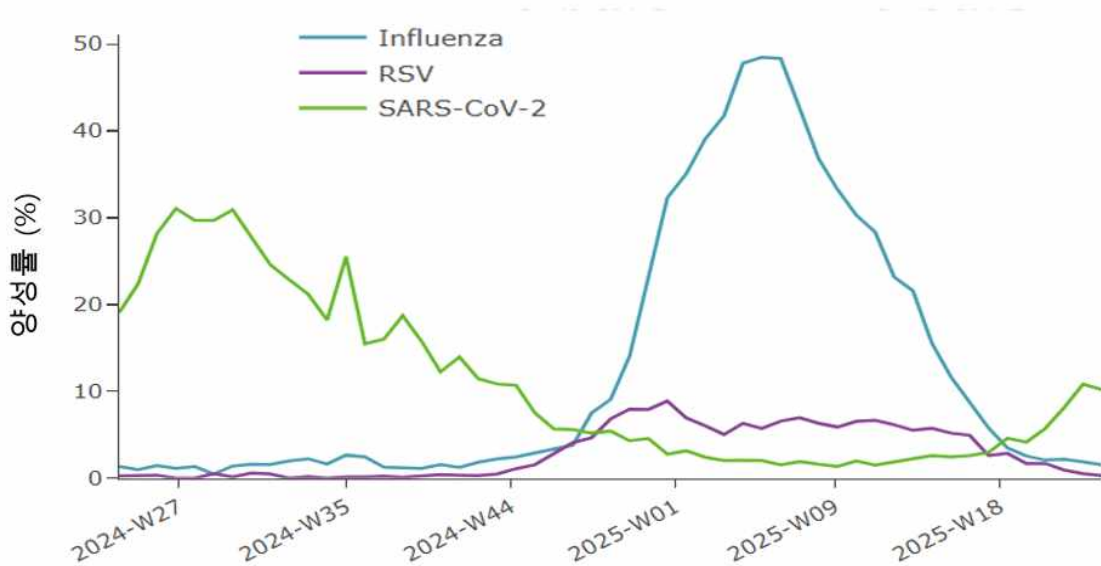


그림 1-1. '24년 23주~'25년 23주 유럽(EU/EEA) 코로나19 검사 양성률¹⁾ (ECDC, '25.6.13.기준)

※ 본 자료는 통합국가 데이터로 여러 국가에서 보고된 검사결과를 합산하여 계산한 전체 양성률이며, 시기마다 포함된 국가 수 상이

- ECDC²⁾³⁾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코로나19의 활동성이 최근 몇 주간 천천히 증가하고 있으나,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1차 의료기관 방문율은 예년 수준이거나 그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입원, 중환자실 입원, 사망 등 중증 지표에서도 유의미한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함
- ECDC²⁾ 예측 모델에 따르면, '24/'25년 겨울철 동안 코로나19 유행이 크지 않아 인구 집단 면역력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변이의 전파력과 중증도 변화가 없다면 코로나19에 대한 인구 면역력 감소만으로도 '25년 여름 유럽(EU/EEA)지역 유행이 증가하기 충분하다고 언급함, 또한 국가와 시나리오에 따라 현저한 차이와 불확실성이 있으나 '24년 여름과 비슷한 규모의 입원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함, 이에 따라 향후 몇 주 동안 감염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입원 환자도 증가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서의 입원환자 증가 가능성을 언급함

- NB.1.8.1 변이^{2),3)}는 기존 오미크론 변이 계통의 하위 변이로, 유럽(EU/EEA) 국가 내 지난 겨울 낮은 코로나19 활동성에 따른 인구 집단면역 감소와 면역 회피력 등의 여러 요소로 인해 NB.1.8.1이 증가했고 현재까지 중증도 증가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평가함, 이와 함께 NB.1.8.1 변이가 다른 오미크론 계열 변이보다 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보지 않으며, 중증 질환에 대한 백신 효능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이와 함께 지난 겨울 유럽(EU/EEA)지역 국가 중 80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중증질환 부담이 가장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접종률²⁾이 80%를 넘는 국가는 1개국, 50%를 넘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였다고 밝힘

상황 평가

- ECDC는 최근 몇 주간 코로나19가 천천히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 신속보고 체계 필요를 언급하였으며, 특히 고령자 및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 권고 및 필요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함
- 질병관리청은 국외 코로나19 발생 상황 및 예년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기, 환기, 기침예절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 증상 있을 시 마스크 착용 및 의료기관 방문 당부

- ECDC는 최근 몇 주간 코로나19의 증가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코로나19 및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 신속 보고 체계 유지 필요를 언급하였으며, 특히 고령자 및 고위험군 등은 백신 접종을 권고함, 또한 필요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손위생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함
- 질병관리청⁴⁾은 국외 코로나19 발생 상황 및 예년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여름철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코로나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환기, 기침예절 등 예방수칙 준수, 기침, 발열 등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마스크 착용과 함께 즉시 의료기관 방문을 당부함

1) Overview of respiratory virus epidemiology in the EU/EEA, week 23, 2025 (ECDC, '25.6.13.)
 2) Epidemiological update: SARS-CoV-2 and NB.1.8.1 variant assessment (ECDC, '25.6.13.)
 3) Slow increases in COVID-19 observed across EU/EEA as new variant emerges (ECDC, '25.6.13.)
 4) 보도자료 |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질병관리청, '25.6.13.)

2. Clade 2b 엠폭스, 시에라리온 Clade IIb Mpox in Sierra Leone

발생 상황

'25년 시에라리온 전역(16개 지역)에서 엠폭스 감염 사례가 급증하여 누적 확진자는 4,151명, 사망은 25명으로 확인됨. 모두 clade 2b 엠폭스로 보고됨¹⁾²⁾

- '25년 시에라리온 수도 프리타운을 포함한 16개 지역에서 엠폭스 감염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누적 확진자는 총 4,151명, 이 중 총 3,442명은 회복, 25명은 사망함(치명률 0.6%, 6.18.기준). 엠폭스 확진 환자 중 15세 미만은 불과 4%였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많은 51%였고, clade 2b 엠폭스로 보고됨

※ (아프리카 지역 엠폭스 발생 현황, 6.15.기준) '25년 총 20,628명 확진, 610명 사망(치명률: 0.89%)³⁾

- 엠폭스 의심 보고 사례의 대부분이 확진되어 검사 양성률이 85%로 매우 높음(6.15. 기준). 접촉자 추적조사가 매우 부진하여 확진자 1명 당 파악된 접촉자가 평균 2명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발생 초기에 병원 병상 부족 문제로 재택 치료 전략이 도입되었으나, 밀집지역 내 빠른 확산으로 해당 전략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이후 시에라리온 정부는 격리시설을 추가 설치했지만 대부분의 격리시설에는 엠폭스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가 부족한 상황임

상황 평가

- 시에라리온 보건당국은 엠폭스 방역에 필요한 백신 640만 도스 중 50만 도스만 확보될 정도로 백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제한적 감시체계(검사 양성률 85%), 미흡한 접촉자 추적(확진자 1명당 평균 2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HO 및 아프리카 CDC와 협력하여 다부처 합동의 AVoHC-SURGE* 대응팀 36명을 고위험 지역에 긴급 배치함⁴⁾

* AVoHC-SURGE(African Volunteers Health Corps Strategic Use of Response Groups of Emergencies): 아프리카 CDC 주도로 설계된 감염병 유행 시 각국의 대응 역량을 보완하고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다부처 및 다분야 전문가들을 신속히 동원·파견하는 긴급 대응 전략 인력 운용 프로그램

- 국내 clade 2b 엠폭스 환자는 '23년 151명 보고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4년 17명, '25년 (6.18.기준) 3명 발생 보고됨. 엠폭스 유행지역 방문 시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접촉을 피하고 야생동물과의 접촉 및 섭취를 삼가며 오염된 물품은 만지지 말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권고⁶⁾

- 시에라리온 보건당국은 엠폭스 예방 백신 공급이 극도로 부족해 필요한 약 640만 도스 중 단 50만 도스만 확보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의료진과 기저질환자 등 우선순위 집단에만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엠폭스 대응을 위해 WHO, 아프리카 CDC와 협력하여 보건, 군·경, 농업 등 다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AVoHC-SURGE 대응팀 36명을 고위험 지역에 긴급 파견하여 엠폭스 감시, 치료, 예방 및 지역사회 소통 강화 등을 선제적으로 조치함

- 국내 clade 2b 엠pok스 환자는 '23년 151명 보고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4년 17명, '25년 (6.18.기준) 3명 발생 보고됨. 엠pok스 유행지역 방문 시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접촉을 피하고 야생동물과의 접촉 및 섭취를 삼가며 오염된 물품은 만지지 말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권고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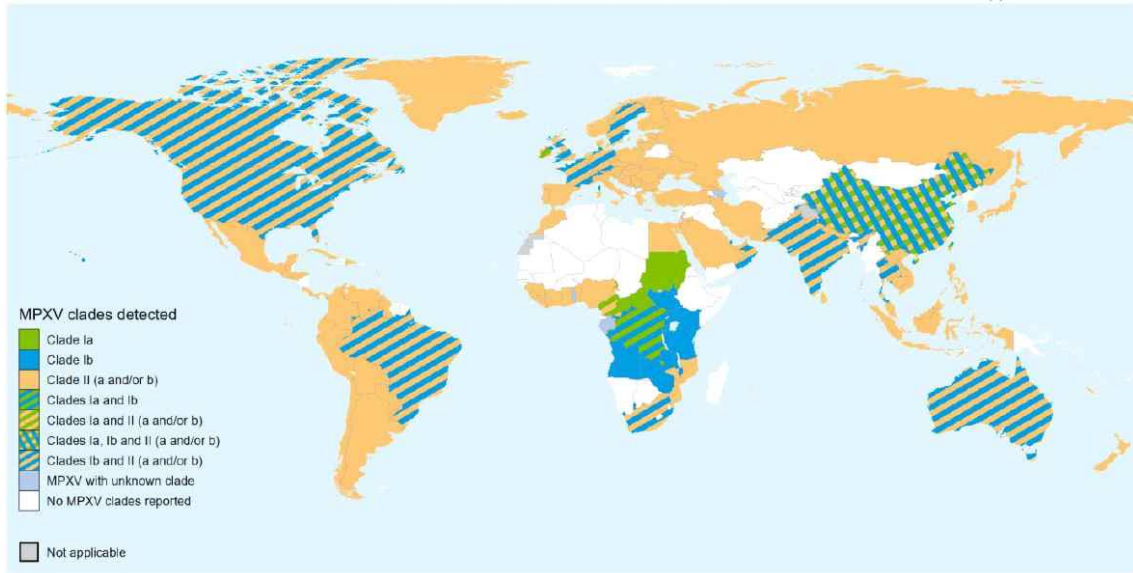


그림 2-1. 전 세계 엠pok스 유전형별 발생지역 현황(WHO, '25.5.29.)⁷⁾

1) Sierra Leone pleads for US support as Mpox outbreak (African Newspapers of Nigeria, '25.6.14.)
 2) Mpox Live Update (National Public Health Agency – Sierra Leone, '25.6.18.)
 3) Africa CDC Epidemic Intelligence Report (Africa CDC, '25.6.15.)
 4) Sierra Leone deploys AVoHC-SURGE team to halt mpox outbreak (WHO, '25.6.13.)
 5) 감염병포털 | 엠pok스 (질병관리청, '25.6.18.)
 6) 보도자료 | 엠pok스 국내 발생은 안정적,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비·대응 강화 (질병관리청, '24.8.26.)
 7) Mpox: Multi-country external situation report no.53 (WHO, '25.5.29.)

3. 치쿤구니야열, 케냐 Chikungunya in Kenya

발생 상황

케냐 몸바사(Mombasa) 카운티에서 '25년 5월 중순부터 발열성 질환 사례 보고 증가. 의심 사례 50명 중 45명 검사 결과 25명에서 치쿤구니야열 양성 확인¹⁾

- 케냐 몸바사(Mombasa) 카운티에서 '25년 5월 중순부터 발열성 질환 사례 보고가 증가함. 케냐 의학 연구소(KEMRI)에서 의심 사례 50명 중 45명 검사 결과 치쿤구니야열 양성 25명(그 외 뎅기열 양성 1명) 확인
-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몸바사 카운티 내 므비타(Mvita), 키사우니(Kisauni), 날리(Nyali), 리코니(Likoni) 하위 카운티임. 몸바사 지역에서 산발적 발생은 보고되고 있었으며, 마지막 치쿤구니야열 유행은 '18년 총 262명(확진 151명) 발생임

상황 평가

- 우기 동안 치쿤구니야열 발생 증가로 발생 지역에서 비상 대응팀 가동 등 대응조치 시행
- 美CDC는 레위니옹, 마요트 등 인도양 지역 국가의 치쿤구니야열 유행에 따라 2단계(Practice Enhanced Precautions) 여행건강경보 발령(5.12.) 이후 케냐를 추가하여 업데이트함(6.10.)
- 국내 치쿤구니야열은 '13년부터 해외유입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24년) 동남 아시아 방문 후 감염된 사례가 가장 많았음. 발생 국가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예방용품 준비, 모기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 준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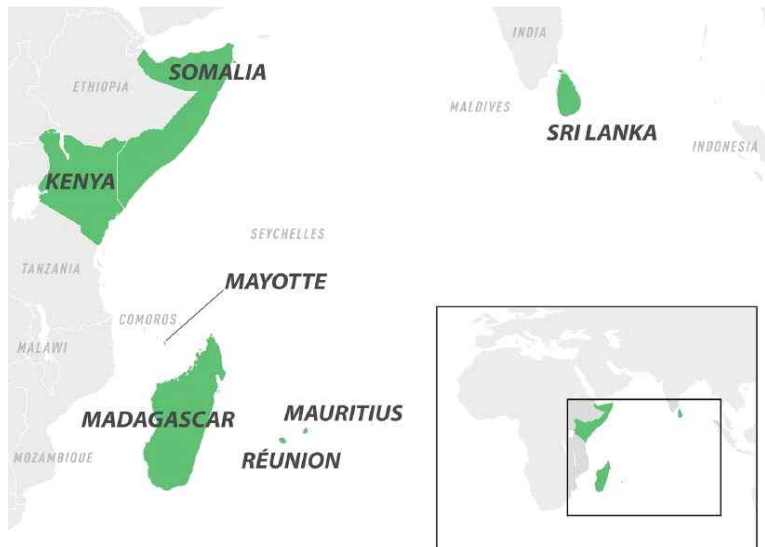


그림 3-1. 인도양 지역 치쿤구니야열 발생 국가 (美CDC, '25.6.10.)

- 최근 비가 지속되어 광범위한 모기 서식지가 형성되고 그에 따라 치쿤구니야열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몸바사 카운티는 비상 대응팀을 가동하고 발생이 많은 지역에 방역 소독 조치함. 또한 주민들에게 모기 서식지 제거, 물 저장고 덮기, 모기장 사용 등 예방조치를 촉구함²⁾
- 美CDC는 레위니옹, 마요트 등 인도양 지역 국가의 치쿤구니야열 유행에 따라 2단계(Practice Enhanced Precautions) 여행건강경보 발령(5.12.) 이후 케냐를 추가하여 업데이트(6.10.)하고 치쿤구니야열 유행 국가 방문 시 모기기피제 사용, 긴 소매·바지 착용, 임신부 여행 제고 등 권고함³⁾

- 치쿤구니아열 국내발생 보고는 아직 없고 해외유입 사례만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24년) 동남아시아 방문 후 감염된 사례가 가장 많았음. '25년에는 현재(6.18.)까지 신고된 사례는 1명(해외유입)임.⁴⁾ 치쿤구니아열 발생 국가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며, 모기예방 물품 준비, 모기기피제 사용 등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필요

1) Africa CDC Epidemic Intelligence Report (Africa CDC, '25.6.11.)

2) 25 cases of Chikungunya confirmed in Mombasa (현지언론보도 The Standard, '25.6.5.)

3) Travel Notices, Chikungunya in the Region of the Indian Ocean - Level 2 (美CDC, '25.6.10.)

4) 감염병 통계 대시보드 (질병관리청, '25.6.18.)

4. 내장리슈만편모충증, 케냐 Visceral Leishmaniasis in Kenya

발생 상황

'24년~'25년(22주 기준) 케냐에서 내장리슈만편모충증 누적 사례 총 1,378명, 사망 46명(치명률 3.3%) 보고, 15세 미만(특히, 5세 미만)에서 치명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

- 케냐에서 '24년부터 '25년 22주까지, 내장리슈만편모충증 누적 사례 총 1,378명, 사망 46명(치명률 3.3%)이 보고됨. 치명률이 높은 연령대는 5세 미만, 5~14세 순으로 확인¹⁾
 - 환자 수는 '24년 49주부터 증가하여 '25년 7~10주에 최다 발생한 후 21주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며, 최근 22주에 만데라(Mandera) 지역에서 신규 환자 10명이 보고됨
- ※ 가장 최근 데이터는 아래 그래프에 미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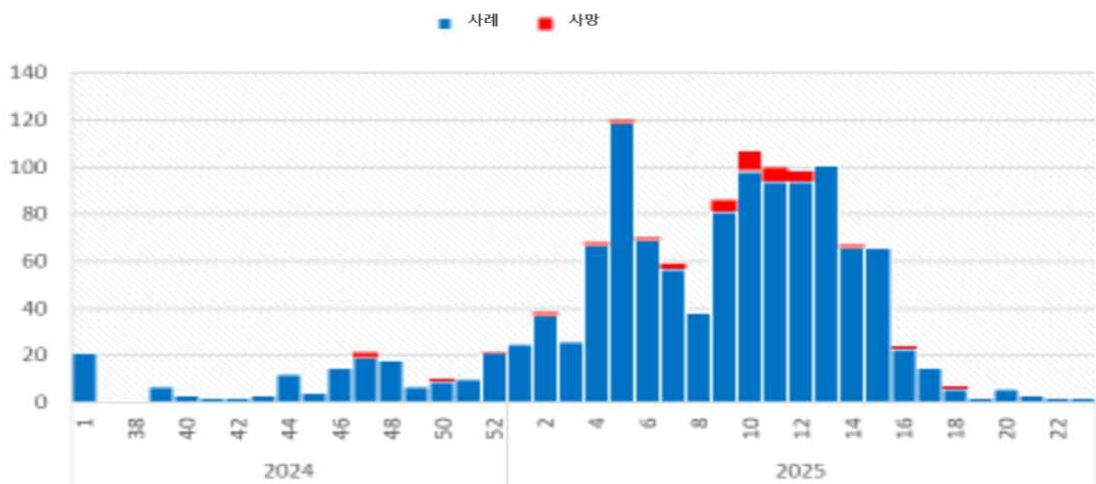


그림 4-1. '24~'25년(~22주) 케냐 지역별 내장리슈만편모충증 발생 및 사망 현황 (WHO/AFRO, '25.6.1.)

- 와지르(Wajir) 지역에서 전체 환자의 69.4%(957명), 사망자의 82.6%(38명)가 보고됨. 발생지역은 와지르(957명, 사망 38명), 마르사빗(347명, 사망 5명), 만데라(65명, 사망 1명), 삼부루(9명, 사망 2명) 순으로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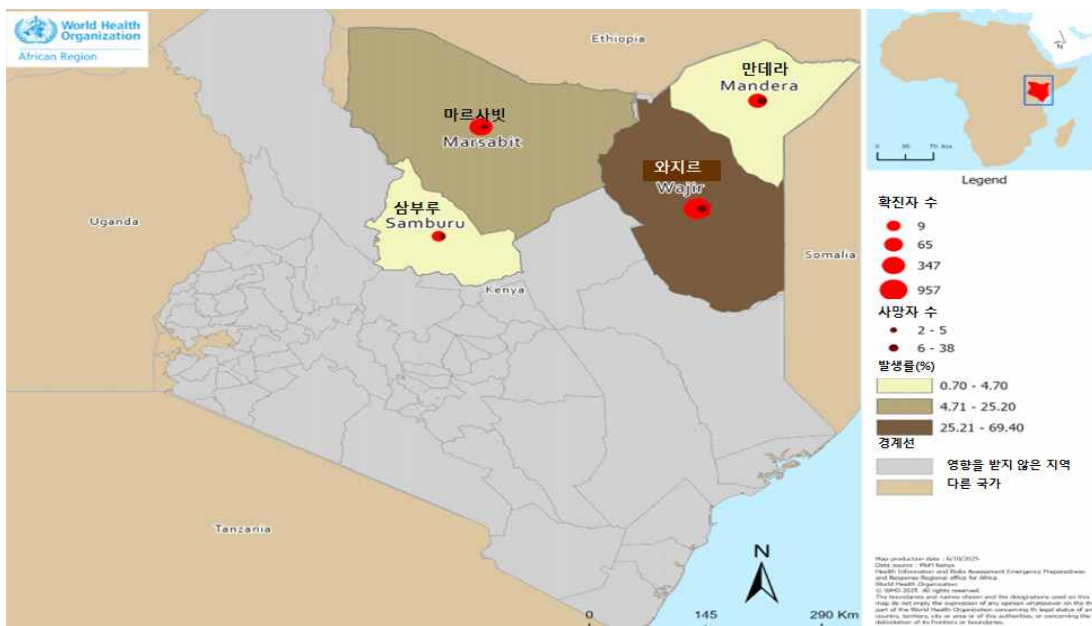


그림 4-2. '24~'25년(~22주) 케냐 지역별 내장리슈만편모충증 지리적 분포 현황 (WHO/AFRO, '25.6.1.)

- 케냐 보건당국은 WHO 등과 협력하여 ▲진료 접근성 강화(이동식 진료소 확대, 적극적인 사례조사 및 감시 등), ▲위험 소통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 ▲필수 의료품 배포, ▲의료종사자 대상으로 환자 관리 교육 제공 등 지속적인 대응 활동을 시행하고 있음

상황 평가

- WHO/AFRO는 케냐에서 내장리슈만편모충증 주간 사례 수는 감소했지만, 만데라 지역에서 신규 환자가 발생하여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 15세 미만에서 지속적인 사망자 발생은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에서의 사례감시 강화, 진단 및 치료 접근성 향상 중요성 부각
- 국내에 매개체인 모래파리가 토착적으로 분포하지 않으나 해외유입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

- WHO/AFRO는 최근 케냐에서 리슈만편모충증 주간 사례 수는 감소했지만, 만데라 지역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여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함. 또한, 15세 미만 아동에서 심각한 질병 부담과 지속적인 사망자 발생은 의료서비스 취약 지역에서의 사례감시 강화, 진단 및 치료 접근성 향상 중요성 부각¹⁾
- 국내에 매개체인 모래파리가 토착적으로 분포하지 않으며 외국에서 감염되어 귀국 후 발병하는 수입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음. 내장리슈만편모충증 유행지역 방문 시 모래파리 활동 시간대인 야간에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긴 옷으로 노출을 최소화하며, 노출된 피부에는 곤충기피제 사용 등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함²⁾³⁾

※ '23년 피부리슈만편모충 감염 해외유입사례 1건(멕시코, 갈라파고스제도 등 중남미 지역 여행 이력), '21년 내장리슈만편모충증 신고 사례 1건(스페인 방문 이력)

질병개요	리슈만편모충증	〈Leishmaniasis〉 ³⁾
정의	• 리슈만편모충(<i>Leishmania spp.</i>) 감염에 의한 피부, 내장 및 피부 점막의 기생충 질환	
병원체 및 병원소	• 병원체: 리슈만편모충(genus <i>Leishmania</i>)속의 원충 • 병원소: 모래파리	
전파경로	• 개와 야생설치류가 보유숙주로 사람은 매개곤충인 모래파리(sand fly)가 흡혈할 때 주입되는 전편모형 원충에 의해 감염 • 드물게 수혈, 환자 직접 접촉 시 상처를 통해 감염	
잠복기	1주~수개월	
증상	• 피부리슈만편모충증: 팔다리, 안면 등 피부노출부에 피부 구진, 수포, 결절 및 궤양 • 내장리슈만편모충증: 발열, 체중감소, 간비장 종대, 범혈구감소증, 고감마글로불린혈증 • 피부점막리슈만편모충증: 침범된 점막에 홍반성 구진, 궤양, 연부조직과 연골 파괴로 인해 입술, 코, 연구개가 파괴되면서 심한 기형 초래	
진단	• 검체(혈액, 골수, 림프절, 피부조직)에서 총체 확인 • 검체(혈액, 골수, 림프절, 피부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관리	• 환자 관리: 피부에 병변이 생길 경우 병소를 보호하여 이를 통한 접촉으로 병원체가 다른 부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 • 접촉자 관리: 필요 없음	
예방	• 매개곤충에 물리지 않도록 함	

1) Weekly bulletin on outbreaks and other emergencies (WHO/AFRO, '25.6.1.)

2) 보도자료 | 리슈만편모충증, 2년 만에 해외유입 감염 발생 (질병관리청, '23.7.7.)

3) 2025년도 기생충 감염병 관리지침 (질병관리청)

추가 정보 및 알림사항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연장!

질병관리청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연장!

**코로나19 예방접종하고
질병을 이길 병으로**

접종대상 |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접종일정 | 2025.5.1.(목) ~ 6.30.(월)

접종기관 |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수)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1. 건강상태가 좋을 때 예방접종 하기
2. 방문자와 피접종인자 모두 마스크 착용
3. 손소독 및 개인위생 수칙 준수
4.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예방접종도우미 방문하기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2025.5.23.



일상 속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 증가 

고위험군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을 받아주세요!

! 국내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인근 국가의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다만 여름철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일상 속 예방수칙 실천과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당부드립니다.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호흡기 증상 시
병원 진료받기



고위험군 코로나19
예방접종 받기

「전 세계 감염병 동향」은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 감염병소식 > [주간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